

KOSPI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신성이엔지 (011930)

반도체 설비투자 회복은 인프라 기업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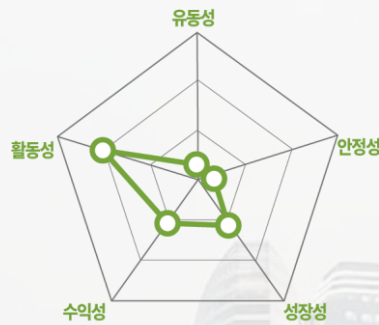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신성이엔지는 1977년 신성기업사로 설립되어 약 50년간 산업설비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 본사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며, 용인시 등에 제조 설비 보유. 2008년 신성홀딩스로 사명 변경 후, 2009년 태양광 사업 본격화에 따라 2011년 신성솔라에너지로 재변경. 2016년 12월 종속회사인 신성이엔지(클린룸 장비) 및 신성에프에이(자동화 설비)를 흡수합병했고, 2017년 현재의 사명인 신성이엔지로 변경
- 2018년 5월 자동화 설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현재는 태양광(재생에너지) 사업부문과 클린룸 사업부문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 클린룸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조공정용 청정환경용 설비, 시스템 제공. 반도체 미세공정이 10nm 이하로 진화하면서 클린룸의 청정도 사양 상향. 고도화된 공조시스템, 정밀 필터링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2025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클린룸 사업부문의 수혜 예상. 생성형 AI 수요 급증에 따른 HBM(High Bandwidth Memory) 생산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설비투자를 재개하고 있으며, 이는 클린룸 구축 수요의 증가로 직결. 신성이엔지의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으나 3분기부터 개선 조짐을 보였고 반도체 설비투자 수혜는 2026년에 본격화 예상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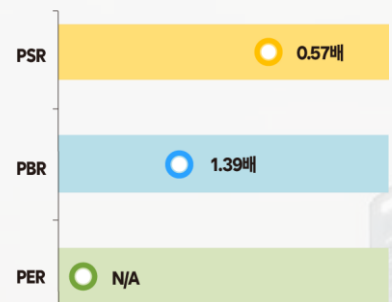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클린룸 사업에서는 공기청정도 제어 장비의 생산 및 설치에 특화

신성이엔지의 클린룸 사업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제조공정에 필요한 공기청정도 제어 장비의 생산 및 설치에 특화. 클린룸 설비 중 공기정화설비 분야를 핵심 역량으로 보유. 일반 산업용 공조 장비 제조와 더불어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드라이룸, 양극 공정용 장비(믹싱챔버, NMP 회수시스템, 하이브리드제습기 등) 설치 공사 수행. 2021년에는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이동형 음압병동(MCM)을 개발. 2022년 충청북도 증평군에 206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공조공장을 준공하고 드라이룸 제습장비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등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해외 법인 통한 글로벌 확장 및 데이터센터 전용 공조시스템 사업 진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10개국에 해외 법인을 운영. 2020년 인도네시아와 폴란드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미국 애틀랜타, 2024년 스페인 및 캐나다에 현지 법인을 추가 설립. 또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용 클린룸 사업에서 축적한 정밀 환경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전용 공조시스템 사업 진출, 2025년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머전 쿨링 기반 고효율 냉각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며 에너지 절감형 데이터센터 솔루션 공급 본격화

재생에너지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가운데 반도체 업황 개선

재생에너지 사업은 클린룸 사업보다 주식 시장에서 덜 주목받았지만 관련 사업 꾸준히 전개. 최근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에 73M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생명용지 저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협력한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사업 300MW 참여를 통해 설계·조달·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제공. 한편 2025년 하반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핵심 사업인 클린룸 부문의 수혜 가시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투자 재개로 첨단 클린룸 구축 수요 증가, 2026년 이후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본격 확대 시 신성이엔지의 수주 증가 및 수익성 개선 본격화 기대. 참고로, 신성이엔지의 고객사 중 삼성전자는 반도체·공조 사업 생산라인을 신설하고 삼성SDS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며 삼성그룹이 5년간 총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언론에 보도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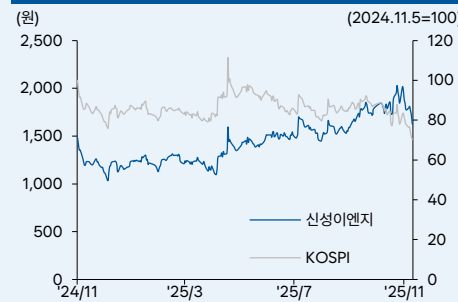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4,545	6,641	5,765	5,823	5,618
YoY(%)	-5.8	46.1	-13.2	1.0	-3.5
영업이익(억원)	24	210	74	50	94
OP 마진(%)	0.5	3.2	1.3	0.9	1.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59	341	162	-141	56
EPS(원)	-78	166	79	-68	27
YoY(%)	적지	흑전	-52.5	적전	흑전
PER(배)	N/A	9.4	25.9	N/A	59.9
PSR(배)	1.0	0.5	0.7	0.4	0.6
EV/EBITDA(배)	46.0	17.4	31.2	21.9	21.3
PBR(배)	2.1	1.5	1.7	1.0	1.4
ROE(%)	-8.0	16.3	7.1	-5.8	2.3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신성이엔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1/14)	1,625원
52주 최고가	2,030원
52주 최저가	1,032원
KOSPI (11/14)	4,011.57p
자본금	1,030억원
시가총액	3,34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06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5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81억원
외국인지분율	7.30%
주요주주	이자선 외 11인 20.7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4	9.2	35.2
상대주가	-16.9	-28.1	-18.5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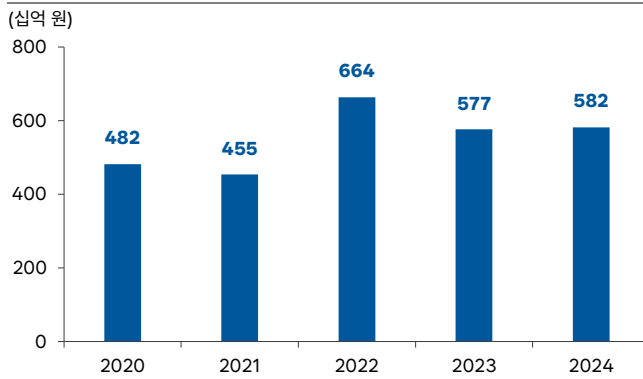
1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반도체, 이차전지 클린룸 인프라의 선도 기업

설립 초기부터

청정환경 제어 기술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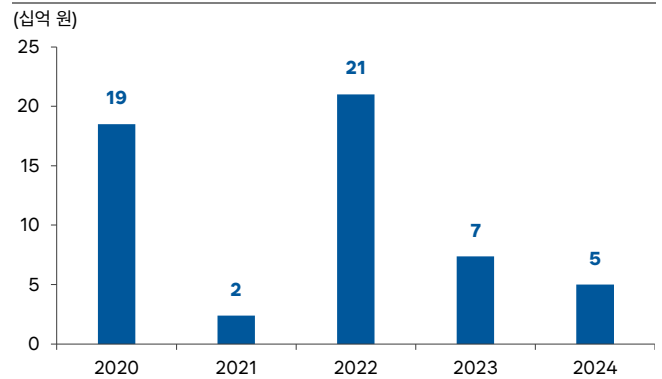
주식회사 신성이엔지는 1977년 신성기업사로 설립되어 클린룸 공기정화설비 제조 및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설비 전문 기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청정환경 구축 기술에 집중해왔으며 국내 클린룸 공기정화설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했다. 본사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며, 주요 반도체 기업과 이차전지 업체의 국내외 생산시설에 클린룸 설비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시스템 제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배터리팩 개발,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운영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친환경 에너지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했다.

신성이엔지 매출



자료: 신성이엔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신성이엔지 영업이익



자료: 신성이엔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클린환경 사업부문으로

FFU, EFU 공급

신성이엔지의 주요 사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클린환경 사업부문으로 FFU(Fan Filter Unit, 팬필터유닛)/EFU(Equipment Fan Filter Unit, 장비용 팬필터유닛), 클린룸 및 공조시스템, 드라이룸 등을 제조하고 설치공사를 제공하며,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3,77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91.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공기정화설비에 특화되어 있으며, 충북 증평군 공조공장 신설(206억 원 투자)을 통해 드라이룸 제습장비 생산능력을 확충했다. 해외 10개국 법인 운영을 통한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전용 공조시스템 사업에도 진출하여 이머전 쿨링 기반의 고효율 냉각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태양광모듈 생산·판매와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시공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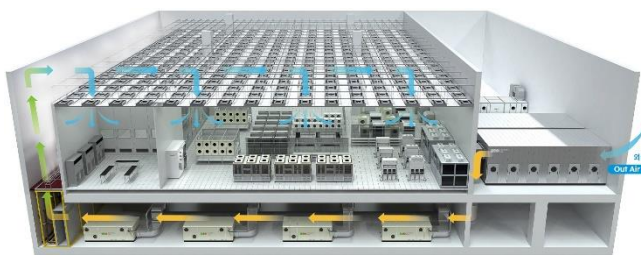
둘째는 재생에너지 사업부문으로 태양광모듈 생산·판매와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시공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34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8.3%를 기록했다. 2020년 전북 김제시에 연간 500MW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태양광모듈 제조역량을 확보했으며, 인버터 제품 판매, 발전소 설치공사 및 사후관리, RE100 솔루션 제공 등으로 매출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과 공동개발한 건물일체형태양광모듈(BIPV) '솔라스칸'은 건물 외장재 기능과 태양광 발전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색상 구현과 발전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클린환경 인프라 장치 및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장비, 부품 등을 공급

FFU는 클린룸 천장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를 지속적으로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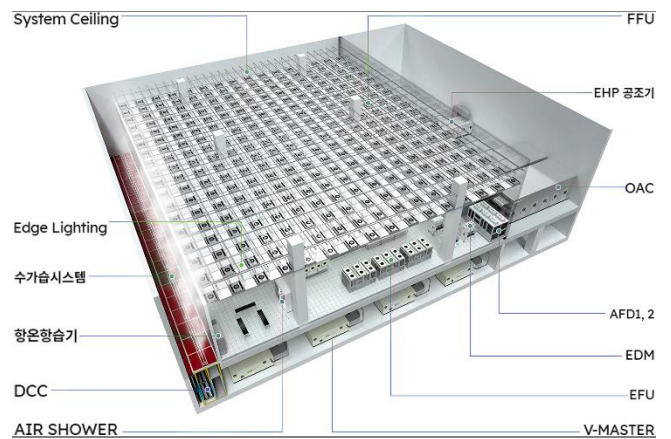
클린환경 사업부문에서 주로 공급하는 제품은 전술했던 바와 같이, FFU(Fan Filter Unit, 팬필터유닛)와 EFU(Equipment Fan Filter Unit, 장비용 팬필터유닛)이다. FFU는 클린룸 천장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를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며 청정공기를 공급하는 핵심 장비다. 모터와 팬을 이용해 공기를 흡입한 후 HEPA 필터를 통과시켜 $0.3\mu\text{m}$ 크기의 미세먼지와 오염입자를 99.9999% 이상 제거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제조공정에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극미세 오염물질조차 제품 불량률 유발할 수 있어, FFU를 통한 철저한 공기정화가 필수적이다.

신성이엔지의 클린룸



자료: 신성이엔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FFU, EFU 등이 설치된 클린룸 내부



자료: 신성이엔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EFU 완제품



자료: 신성이엔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FFU 완제품



자료: 신성이엔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EFU는 클린룸 내부의 생산설비나 미니 환경(Mini- Environment)에 직접 장착

EFU는 클린룸 내부의 생산설비나 미니 환경(Mini-Environment)에 직접 장착되어 장비 주변의 국소 청정환경을 조성하는 제품이다. FFU가 클린룸 전체의 공기를 정화한다면, EFU는 특정 공정이나 장비 내부의 미세환경을 더욱 정밀하게 제어한다. $0.1\mu\text{m}$ 크기의 초미세입자까지 99.9999% 이상 제거할 수 있어 FFU보다 높은 수준의 청정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노광공정이나 디스플레이 증착공정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차압을 유지하고 기류 방향을 제어하여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OAC는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필터링하고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

OAC(Outdoor Air Control Unit, 외기조화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처리하여 클린룸에 공급하는 장비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시설은 밀폐된 공간이지만 작업자의 호흡과 공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선한 외기가 필요하다. OAC는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필터링하고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한 후, 클린룸 내부에 일정한 양압을 유지하도록 공급함으로써 외부 오염물질의 역류를 방지하고 최적의 생산환경을 조성한다.

**V-master는
클린룸 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하는 장비**

V-master는 클린룸 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제거하는 장비다. VOCs는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공기 중에 퍼지는 탄소 기반 화합물로,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이 대표적이며 장시간 노출 시 두통, 현기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발암 위험도 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또한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생성하는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는 회로 패턴 형성을 위한 포토레지스트, 불순물 제거를 위한 세정제, 화학물질 용해를 위한 각종 유기용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VOCs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신성이엔지는 클린룸에 VOCs 제거장치를 적용하여 공정 중 발생하는 VOCs를 95% 이상 제거함으로써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산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준수와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HPL은 시공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

HPL(High Performance Lift)은 클린룸 천장 시스템을 모듈화하여 시공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혁신 장비다. 기존 클린룸 시공 시 작업자들이 높은 천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HPL은 시스템 천장을 모듈화하고 리프트 장비를 활용하여 고소작업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

**태양광 모듈 제조·공급부터 발전소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 제공**

이처럼 신성이엔지는 클린룸 환경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을 통해 태양광 모듈 제조·공급부터 발전소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Turn-key) 솔루션을 제공한다. 태양광 모듈은 태양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전지(Solar Cell)를 여러 개 연결하여 프레임으로 고정된 태양광 발전용 패널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다. 신성이엔지는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연간 500MW(메가와트, 50만kW급 발전용량)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효율·고출력 성능을 갖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한다.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Pb, Lead) 함유량을 제거한 Pb-free 제품을 개발했으며, 장기간 옥외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내구성을 인정받아 엄격한 품질 기준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취득했다. 태양광 모듈 외에도 태양광으로 생성된 직류(DC) 전기를 교류(AC)로 변환하는 인버터(Inverter) 제품을 함께 공급하며, 발전소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발전 효율을 최적화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기존의
건물 외장재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수행하는
일석이조의 솔루션**

이와 더불어,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인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솔라스킨'은 코오롱글로벌과 공동개발한 혁신 제품으로, 기존의 건물 외장재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수행하는 일석이조의 솔루션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건물 옥상이나 별도 부지에 설치되어 건물과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지만, BIPV는 건물의 외벽, 지붕, 창호 등에 건축 자재처럼 직접 통합 설치되어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면서 전력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 없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며, 건축 비용과 전력 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여 건물의 심미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제로에너지 빌딩 구현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건축 미학과 조화를 이루는 BIPV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3 주주 구성 및 최대주주 현황

최대주주는 이지선 대표이사

2025년 9월 30일 기준 신성이엔지의 최대주주는 이지선 대표이사로, 총 발행주식수 중 16,700,215주(8.11%)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전체 지분율은 20.84%로, 총 42,900,669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 는 이완근 회장이 14,264,285주(6.93%)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은희가 7,035,754주(3.42%)를 보유하고 있다. 관계 회사인 (주)신성이넥스는 2,779,381주(1.35%), 우리기술투자(주)는 1,325,653주(0.64%)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정선이 795,381주(0.39%)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선 대표이사(1975년 1월생)는 1998년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1년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1월부터 신성이엔지에 합류하여 2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해왔으며, 2016년 12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 미래에너지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세계재생에너지컨퍼런스 유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7년 2월부터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제5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도 힘썼으며, 2025년 3월부터는 한국수입협회 부회장을 맡아 대외 협력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 현황

1 신성이엔지와 유사한 기업들은 과거에 건설업종으로 분류되거나 인식되어 저평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등
첨단산업 시설의 플랜트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신성이엔지는 현재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섹터로 분류되어 있으며, 동종 업종의 유사 상장기업으로는 성도이엔지, 한양이엔지, 케이엔솔(구 원방테크) 등이 있고,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면 세보엠이씨, 에스티아이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기업이 전통적으로 반도체장비 섹터 내에서 비교적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다는 것인데, 그 주된 이유는 이들 기업이 건설업종 기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도이엔지는 IPO 당시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었고, 신성이엔지의 경우에도 정관상 사업목적에 살펴보면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 설계용역업, 위생 및 냉난방 기계·기구 설치업,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 건설 관련 사업목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 구조적으로 건설업종 기업의 특성을 상당 부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목적 구성은 이들 기업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장 등 첨단산업 시설의 플랜트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온 역사를 보여준다. 여기서 플랜트 건설이란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일반 건축물을 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반도체 팹(fab)이나 디스플레이 공장처럼 정밀한 생산환경이 요구되는 산업시설의 설계, 시공, 각종 설비 설치 및 통합을 아우르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건설 분야를 의미한다. 현재는 이들 기업이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판매업, 자동화 설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서비스업 등 장비 사업을 확대하며 반도체장비 섹터로 사실상 정체성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들의 건설업적 뿌리를 인식하고 있어 순수 반도체장비 제조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경향이 이어졌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사(신성이엔지, 한양이엔지, 성도이엔지, 에스티아이, 세보엠이씨)의 합산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3,000~6,000억 원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며 SK하이닉스가 분기 적자 흐름을 완전히 벗어났던 2013년에도 이들 5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4,000억 원 수준을 넘지 못했다.

5개사 (신성이엔지, 한양이엔지, 성도이엔지, 에스티아이, 세보엠이씨) 합산 시가총액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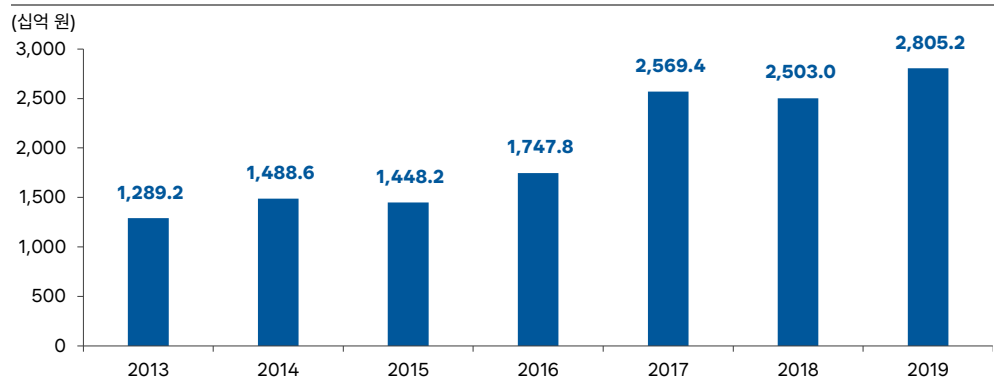
**2016~2017년에는 상기 5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6,000억 원의
벽을 뚫고 1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클라우드 수요 확대로 호황을 경험했던 2016~2017년에는 상기 5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6,000억 원의 벽을 뚫고 1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재평가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반도체 업황 호황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증착·식각·세정 등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원익PS, 주성엔지니어링 등 소위 '순수' 장비사들만이 아니라, 플랜트 및 인프라 전문 기업들 역시 상당 규모의 수주 기회를 확보한다는 사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반도체 팹 건설 프로젝트는 단순히 장비를 배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클린룸 구축, 유틸리티 인프라(초순수 공급, 특수가스 배관, 폐수처리, 전력 및 냉각 시스템 등) 설치, 공조 및 진동제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정밀 생산환경을 완성하는 턴키(turn-key) 방식의 종합 시공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개별 건으로도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팹 증설에 나설 경우 개별 협력사들이 500~1,0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주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가시화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수주 확대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상기 5개사의 합산 매출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상회했고 2018년과 2019년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수주의 매출 시현에 힘입어 합산 매출이 2조 원을 초과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동반 성장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 당시에는 삼성전자 평택/화성 라인과 SK하이닉스 M14 라인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수주 공시가 연이어 발표되었고, 이는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이들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더욱이 반도체 장비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섹터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던 인프라 전문 기업들은 일종의 '가치 재발견' 대상으로 부각되며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5개사 (신성이엔지, 한양이엔지, 성도이엔지, 에스티아이, 세보엠이씨) 합산 매출 - 2017년 2조 원 상회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규모 수주 및 매출로 주목받은 이후 2018~2020년까지 재차 저평가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이

불확실성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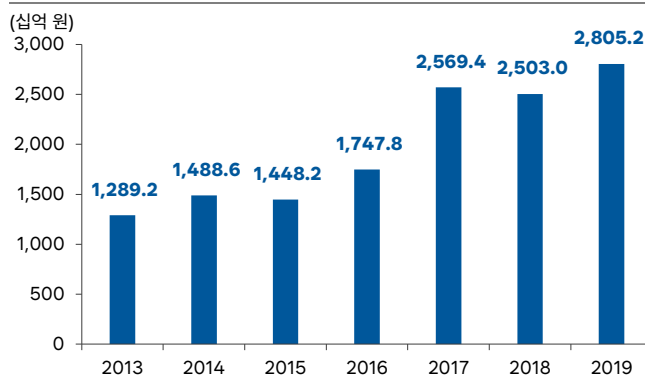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다시 6,000억 원대 수준까지 하락하며 2016~2017년 호황기에 형성되었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소멸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이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서버 및 PC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집행이 사실상 유지보수 위주로 제한되고 신규로는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2018년을 기점으로 급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양대 메모리 제조사는 신규 팹 건설은 물론 기존 라인의 증설 계획마저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공정 장비사는 물론 인프라 및 플랜트 전문 기업들의 신규 수주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의미했다.

52시간 근무제는 이들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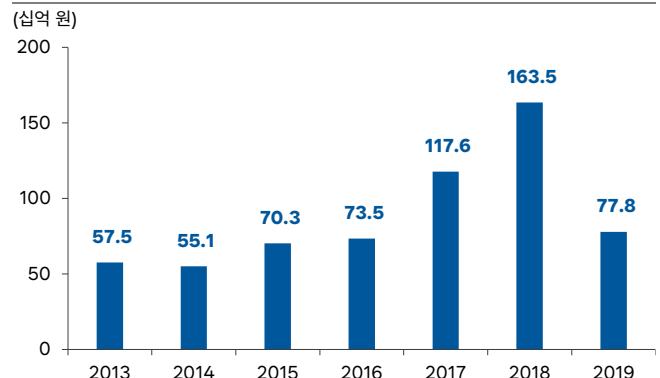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201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들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플랜트 건설 및 장비 설치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납기 준수를 위해 단기간 집중적인 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동일한 작업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거나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되었고, 기존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신규 입찰 시 원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국 반도체 업황 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시장은 이들 기업에 대해 다시금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게 되었고, 합산 시가총액은 2016~2017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정을 겪게 되었다.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실적 부진은 2019년에 뚜렷하게 드러났다. 2019년 기준 5개사 합산 매출은 전술했던 바와 같이 과거 누적된 수주의 매출 시현에 힘입어 2조 원을 상회하는 2.8조 원을 기록했는데, 2019년 합산 영업이익은 2018년 1,635억 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78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기준 5개사 합산 매출은 2조 원 상회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19년 기준 5개사 합산 영업이익은 2018년 1,635억 원의 절반 수준 하회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때는 이차전지 드라이룸 설비투자 수혜 가시성 부각

이차전지 드라이룸이란
초저습도 환경의 클린룸

인프라 전문 기업의 실적은 이후 거의 대부분 반도체 설비투자 흐름을 따라가는 패턴을 보여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요가 반도체 호황을 유발했을 때는 인프라 전문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후 반도체 업황이 업사이클에서 다운사이클로 전환하게 되는 2022~2023년에는 이차전지 드라이룸 설비투자가 활발해지며 케이엔슬(구 원방테크)이 이들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국면이었다.

이차전지 드라이룸이란 배터리 제조 공정 중 습기에 극도로 민감한 전극 제조 및 셀 조립 공정을 위해 구축되는 초저습도 환경의 클린룸을 의미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극 활물질과 전해질은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면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 공정은 이슬점 -40℃ 이하, 상대습도 1% 미만의 극건조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드라이룸 구축에는 반도체 팹과 유사하게 고도의 공조 시스템, 제습 설비, 클린룸 기술이 요구되며, 따라서 반도체 인프라 전문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시공 노하우가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케이엔슬은 2020년에 상장한 기업으로 앞서 언급된 5개사 대비 가장 최근에 상장했고, 이차전지 드라이룸 인프라 분야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으로 인식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2023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지 않아 메모리 제조사들의 신규 팹 투자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인프라 기업들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이차전지 드라이룸 수주 실적을 중심으로 IR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 미팅에서 "반도체 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강조하며 이차전지 고객사 확보 현황과 수주 파이프라인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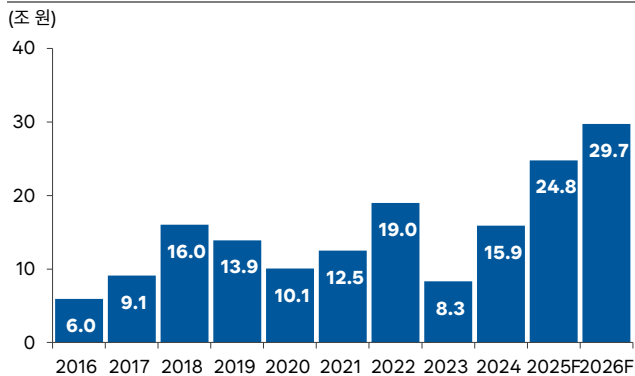
전방산업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늘어날 것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현금창출 능력이 크게 강화되며
설비투자 여력 개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공지능 분야를 제외하고 수요가 부진하던 반도체 업계는 2025년을 기점으로 레거시 제품의 수요도 상당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도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는 2025년 24.8조 원에서 2026년 29.7조 원으로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는 2024년과 2025년 50조 원 초반 수준에서 2026년 56.1조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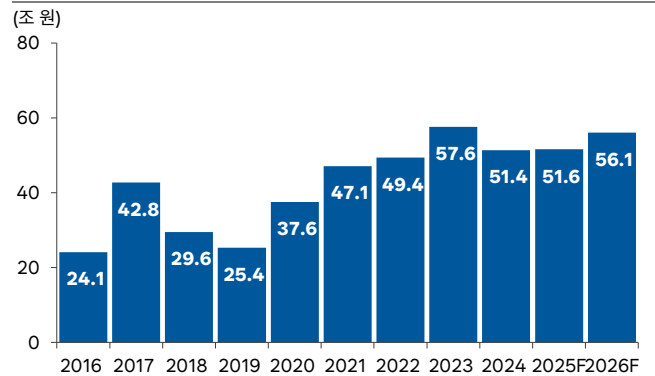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판매 마진율이 급격히 개선되어 일부 제품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DDR4, LPDDR4X 등 성숙 공정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과 공급 조절이 맞물린 결과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현금창출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레거시 제품의 수요와 마진이 본격적으로 개선된 시점이 2025년 하반기인 만큼, 전방산업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개선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설비투자 여력이 커졌으며, 특히 차세대 HBM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DRAM/NAND 공정 전환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도체 인프라 전문 기업들에게 2024년 이후 처음으로 찾아오는 본격적인 수주 확대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16~2017년 호황기와 유사한 실적 개선 사이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K하이닉스 설비투자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설비투자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인프라 전문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대규모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 확대**

결론적으로, 신성이엔지를 포함한 반도체 인프라 전문 기업들은 건설업에서 출발하여 반도체장비 섹터로 정체성을 전환해 온 독특한 이력으로 인해 자본시장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측면이 존재한다. 이들 기업의 실적과 시장에서의 평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는데, 2016~2017년 호황기에 합산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하며 가치 재발견의 계기를 맞았으나, 2018~2020년 업황 침체기와 인건비 부담 증가, 영업이익 부진으로 다시 조정을 겪었고, 2023년에는 이차전지 드라이룸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 기업의 실적은 반도체 제조사의 설비투자 규모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 레거시 메모리 제품의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2026년 양사의 설비투자가 컨센서스 기준 각각 29.7조 원, 56.1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인프라 전문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대규모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호황기의 경험을 감안할 때, 이번 사이클은 이들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인식을 재정립하고 반도체 인프라 기업이 저평가 국면을 다시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포인트

1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기타 산업 분야에서 클린환경 사업 전개

국내외 주요 반도체 팹(fab)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도
고객 다변화 추진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클린환경 사업을 전개해 온 국내 대표적인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클린환경 사업부문은 연결 매출액 1,456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2.4% 증가,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클린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반도체 부문이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22%, 디스플레이 14%, 기타 12%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팅택 P4 Phase 4, SK하이닉스 청주 M15X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팹(fab)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및 LG디스플레이 파주 등 디스플레이 고객사와도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SK온/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완성차 분야에서도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우화인켐 팅택·익산 클린룸, CJ Food 청주 HVAC 공사 등 기타 산업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처럼 신성이엔지는 단순 시공사가 아닌,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보했다.

2 클린환경 사업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투자 회복세 감지

실적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확대

신성이엔지의 클린환경 사업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산업에서 설비투자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3분기부터 국내외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의 설비투자 개선이 조금씩 가시화되었으며, 2025년 4분기에는 삼성전자 팅택 P4, 테일러, SK하이닉스 청주 팹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인 매출 인식이 예상된다. 특히 테일러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현지 업체들의 공사 진행 지연과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신성이엔지와 같은 국내 전문 시공사에 대규모 추가 수주 기회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용인 클러스터는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 팅택 P5 역시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세와 AI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2026년 중 착공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장기 수요 확대를 예상해 팅택 P5 골조 공사를 추진하기로 임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25년 11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FläktGroup) 인수를 완료했으며, 광주광역시 플렉트의 한국 생산라인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플렉트그룹은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대형 상업시설, 병원 등을 위한 중앙공조 및 정밀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10여 개의 생산거점과 유럽·미주·중동·아시아에 걸친 폭넓은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플렉트는 글로벌 선두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업하며 공기냉각·액체냉각을 아우르는 AI 데이터센터용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플렉트 인수를 통해 개별공조 중심 솔루션에서 각종 산업·대형 건물용 솔루션 및 고성능하는 데이터센터 대상 중앙공조 시장

으로 본격 진출해 B2B 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SDS 역시 전라남도예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미 AI 데이터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하이닉스의 경우 청주 M15X 2단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추가 설비투자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26년에도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신성이엔지의 수주 모멘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25년 상반기까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도체 설비투자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신성이엔지는 지난 수년간의 실적 침체기를 벗어나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 사이클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클린환경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내재화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공기 단축, 원가 절감이 가능한 토털 솔루션 체계를 구축

신성이엔지의 세 번째 핵심 경쟁력은 클린환경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클린룸 구축 프로젝트는 설계, 시공, 장비 조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다수의 협력업체와 장비 공급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성이엔지는 클린룸 핵심 장비인 FFU(Fan Filter Unit), EFU(Equipment Fan Filter Unit), EDM(Equipment Dehumidify Module), OAC(Outdoor Air Control Unit), V-master(VOCs 제거장치), HPL(High Performance Lift) 등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공급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공기 단축, 원가 절감이 가능한 토털 솔루션 체계를 구축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청정도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

특히 FFU (Fan Filter Unit)는 클린룸 천장에 설치되어 청정한 공기를 고르게 공급하고 순환시키는 장비로, 초미세입자를 99.9999% 이상 제거해 높은 청정도를 유지하는 클린룸의 핵심 장비다. 신성이엔지는 FFU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고객사의 요구 사양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청정도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EFU (Equipment Fan Filter Unit)는 클린룸 내부의 생산설비에 직접 설치되어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내부 압력과 공기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초미세입자를 완벽 제거하는 장비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율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비다.

클린룸 전체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어

또한 EDM (Equipment Dehumidify Module)은 반도체 및 첨단소재 제조 공정에서 공기 중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안정적인 저습 환경을 유지하는 고성능 제습 모듈로, 기존 공기청정 기능에 제습 기능을 통합한 일체형 장비다. 이는 특히 습도에 민감한 이차전지 제조 공정의 드라이룸 구축에 필수적인 장비로, 신성이엔지가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OAC는 반도체, LCD 및 클린룸 내부에 일정한 양압과 온-습도를 유지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를 청정하게 공급하는 장비로, 클린룸 전체의 환경 제어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친환경 솔루션도 내재화

신성이엔지는 V-master라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장치를 클린룸에 적용하여 공기 중 잔존하는 유기화합물을 95% 이상 제거함으로써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이 강조되는 최근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HPL은 안전성이 강화된 시스템 천장(System Ceiling) 모듈화 장비와 시공법 개발을 통해 고소 작업을 줄이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한 장비로, 시공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이처럼 신성이엔지는 클린룸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내재화함으로써 고객사의 요청 및 사양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 시공사가 아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과 고객사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이차전지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이엔지의 장비 내재화 역량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리뷰

총 비용 증가 폭이 매출 증가 폭을 상회

2024년 신성이엔지의 연결 매출액은 5,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1.0%) 소폭 증가했으나, 연결 영업이익은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32.2%) 감소했다. 연결재무제표에는 소주신성초정화계통유한공사(중국), 신성이엔지 베트남, 신성이엔지 헝가리, 신성이엔지 미국, 신성이엔지 스페인, 신성이엔지 캐나다 등 해외 법인들이 종속회사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클린환경 사업부문이 5,281억 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재생에너지 사업부문 508억 원(8.7%), 기타 사업부문 34억 원(0.6%)을 기록했다.

연결 매출액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총 비용 증가 폭이 매출 증가 폭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총 비용은 5,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원 증가하여 매출 증가분(58억 원)을 약 24억 원 초과했다. 특히 외주가공비가 2023년 908억 원에서 2024년 1,272억 원으로 364억 원 급증했고, 급여가 943억 원에서 1,041억 원으로 98억 원 증가했으며,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23억 원 증가), 지급용역료(22억 원 증가) 등 주요 비용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부진했다.

2025년 1~3분기 실적 리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확대

2025년 1~3분기 신성이엔지의 연결 매출액은 4,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4,215억 원 대비 67억 원(-1.6%) 소폭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억 원 손실 대비 손실이 확대되었다. 매출원가는 3,721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매출액 감소로 인해 매출총이익이 4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95억 원 대비 67억 원 감소했다. 판매비와관리비는 4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508억 원 대비 64억 원 감소하여 비용 절감 노력이 가시화되었으나, 매출총이익 감소 폭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분석한 결과, 외주가공비와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의 증가가 수익성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2025년 1~3분기 외주가공비는 1,3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914억 원 대비 430억 원(47.0%) 급증했으며,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은 8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97억 원 대비 감소했으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외주가공비의 급증은 프로젝트 특성상 외주 의존도가 높은 대형 클린룸 구축 사업의 비중이 증가했거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주 활용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급여는 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794억 원 대비 49억 원(6.2%) 감소하여 인건비 통제 노력이 확인되었으나, 외주가공비 증가폭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5년 3분기 실적 리뷰

반도체 설비투자 회복세가 본격화

2025년 3분기(7~9월) 신성이엔지의 연결 매출액은 1,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22억 원 대비 164억 원(+11.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9억 원 적자에서 성공적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총이익은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8억 원 대비 증가했고, 판매비와관리비는 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167억 원 대비 10억 원(6.1%) 감소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었다. 이번 3분기 실적 개선은 반도체 설비투자(SK하이닉스 국내 M15X

패,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팹)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클린환경 사업부문의 프로젝트 진행 및 매출 기여가 가시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전방산업에서 AI 및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클린룸 수요 확대가 신성이엔지의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실적 전망

매출은 소폭 감소하나 영업이익 개선 가시화

2025년 신성이엔지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5,61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1~3분기 누적 매출이 4,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4,215억 원 대비 67억 원(-1.6%) 감소한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상반기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투자 집행이 지연되면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분기부터 실적 개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3분기 단독으로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개선세가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인은 클린룸 사업 내에서 반도체 클린룸 구축 프로젝트의 비중 확대이다. 반도체 클린룸 사업은 디스플레이나 이차전지 등 다른 전방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우수한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견고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전사적인 외주가공비 증가가 신성이엔지의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마진 반도체 프로젝트의 비중 확대가 이러한 비용 증가 압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성 개선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클린룸 프로젝트가 다른 사업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젝트 믹스 개선만으로도 전체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주요 거점에서 설비투자를 재개하면서,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설비투자 프로젝트에서 핵심 인프라 구축 업체로서 수주 확대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 구조 개선에 힘입어 2025년 연결 영업이익은 2024년 50억 원 대비 약 88% 개선된 94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성이엔지가 실적 침체기를 벗어나 수익성 회복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2026년 이후 반도체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컨센서스를 감안한다면, 2026년에 더욱 양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연도별 매출

(단위: 억 원, %)

	2023	2024	2025F
매출액	5,765	5,823	5,618
% YoY	-13.19%	1.00%	-3.52
태양광에너지 사업부문	658	508	490
클린룸 사업부문(반도체, 이차전지 등)	5,088	5,281	5,095
기타부문	20	34	33
영업이익	74	50	94
영업이익률	1.3	0.9	1.7

자료: 신성이엔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PSR 기준으로 1.2배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과거 추이를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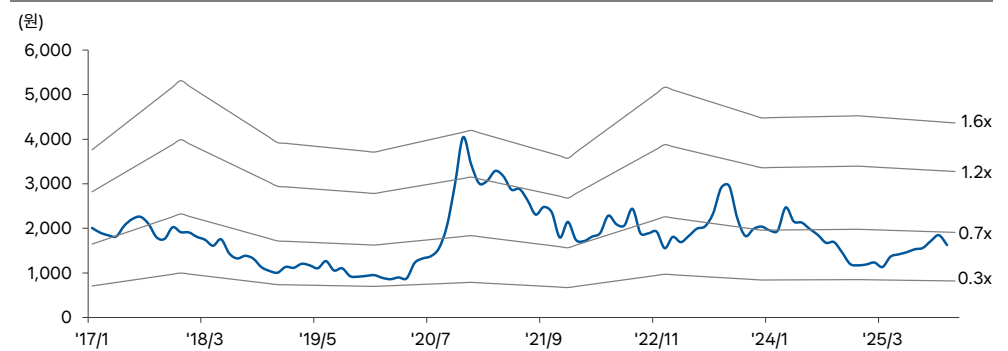
현재 주가 수준을 평가할 때

PSR 1.2배는 밸류에이션의 중요한

저항선으로 기능

신성이엔지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PSR(Price-to-Sales Ratio) 밴드이다.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성이엔지의 PSR 밴드는 최저 0.3배에서 최고 1.6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시점은 2020년으로, 당시 PSR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업황 전체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 우려로 신성이엔지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는 극단적인 저점을 기록했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3,000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PSR 밴드 상단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통상적인 시장 환경에서는 PSR이 1.2배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과거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성이엔지의 주가 수준을 평가할 때 PSR 1.2배는 밸류에이션의 중요한 저항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PSR 밴드



누적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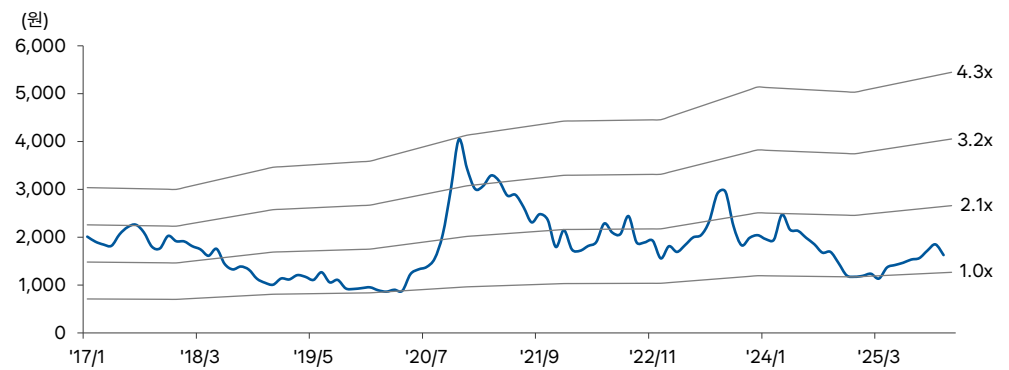
신성이엔지는 최근 주가 기준으로 PSR 0.7배를 하회하고 있어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 업황이 레거시 반도체 제품 기준으로도 2025년 하반기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성이엔지의 실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1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13분기 신성이엔지의 연결 매출액은 4,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4,215억 원 대비 67억 원(-1.6%) 소폭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억 원 손실 대비 손실이 확대되었다. 비록 3분기만 따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수익성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턴어라운드 조짐이 포착되고 있으나, 상반기 누적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PSR 0.7배 미만이라는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수준은 물론 업황 개선 기대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PBR 밴드를 살펴보면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시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극심한 저평가 상황

**PBR이 최하단 밴드인 1.0배에
근접한 모습은 과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던 2018년
수준의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

신성이엔지의 PBR(Price-to-Book Ratio) 밴드를 살펴보면 앞서 검토한 PSR 밴드의 경우보다 더욱 극심한 저평가 상 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차트에서 보듯이 PBR 밴드는 최저 1.0배에서 최고 4.3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다. 최근 주가 기준 PBR이 최하단 밴드인 1.0배에 근접한 모습은 과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던 2018년 수준에 근접한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PBR 1.0배 수준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자본총계)와 거의 동일 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로, 자본시장이 신성이엔지를 계속 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 능 력보다는 단순 순자산가치 수준으로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신성이엔지가 약 50년간 축적해온 클린룸 설 계-시공 기술력,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 숙련된 엔지니어링 인력, 그리고 산업설비 분야의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반영된 수준이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 속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평가라고 판단된다.

PBR 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18년 당시와 현재 시장
환경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

2025년 11월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2018년과 유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은 사실이다.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 AI, 첨단 제조 등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 통제와 기 술 이전 제한 등의 규제적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당시와 현재 시장 환경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8년의 무역분쟁은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
장벽**

2018년의 무역분쟁은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 장벽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위축을 초래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당시 반도체 산업은 스마트폰과 PC 등 전통적인 수요처의 성장 둔화와 맞물리면서 재고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과 함께 업황 전반의 침체 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조정 국면에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경험했다. 2018년 6월 OpenAI가 GPT-1을 출시하며 대규모 언어모델의 가능성을 처음 제시했지만, 당시만 해 도 이는 학계와 일부 연구 기관의 관심사에 머물렀을 뿐 2023년 ChatGPT(GPT-3.5/GPT-4 기반) 출시 때만큼의 광 범위한 인공지능 수요를 촉진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2018년 시점에서는 AI가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업황 침체를 반전시킬 만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부재한 상태였다.

**2025년 현재의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이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기술 경쟁 구도**

반면 2025년 현재의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이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기술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양국 AI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견인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3년 ChatGPT 후속 버전의 폭발적 성공 이후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AI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정부의 대중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자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 로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미국, 중국에서 동시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

실제로 미국의 NVIDIA는 데이터센터용 GPU 수요 급증으로 2024 회계연도 이후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학습(training)과 추론(inference)을 위한 고성능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NVIDIA의 Hopper 아키텍처 기반의 H100, H200 GPU는 물론 차세대 Blackwell 아키텍처 제품들에 대한 선주문이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Cambricon(캠브리콘) 역시 자국 내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NVIDIA의 최첨단 GPU 도입이 제한되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자국산 AI 반도체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Cambricon은 이러한 수혜의 중심에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AI 산업 육성 정책과 반도체 국산화 드라이브가 맞물리면서, Cambricon을 비롯한 중국 AI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및 클라우드
기업들이 강력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전개**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및 클라우드 기업들이 강력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반도체 업황의 구조적 강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Microsoft, Amazon(AWS), Google(GCP), Meta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 자본지출(CapEx)을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ChatGPT, Gemini, Claude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추론 워크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GPU뿐만 아니라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 등 데이터센터 전반의 업그레이드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알리바바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 화웨이 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AI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동수서산(東數西算, East Data West Computing)'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과 맞물려, 이러한 투자 확대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는 물론 이를 구성하는 핵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5년 반도체 업황은 AI 수요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은 2018년과 명백히 구분되는 요소다. 2018년의 업황 침체가 수요 위축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현재는 공급 제약이 더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수요가 강력한 상황이다.

**자본시장이 신성이엔지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신하기까지는
추가적인 분기별 실적 개선 트랙
레코드가 필요할 것**

이러한 거시적 업황 개선을 감안할 때 신성이엔지의 현재 PBR 밴드 위치는 극심한 저평가를 의미하며, 향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2025년 3분기의 호실적(전년 동기 대비)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기는 하나 2025년 연간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서프라이즈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1~3분기 누적 실적이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역성장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이 신성이엔지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신하기까지는 추가적인 분기별 실적 개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속도는 분기별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 중장기 관점에서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기적 주가 변동성에 대비한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리스크 요인

전방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프로젝트가 전사 수익성을 좌우한다는 점이 리스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침체되어
투자 집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신성이엔지의 수익성 악화

신성이엔지의 주요 리스크는 수익성 측면에서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신성이엔지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클린환경 사업부문 내에서 반도체가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제약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도체 클린룸 구축 프로젝트는 디스플레이나 이차전지 등 다른 전방산업 대비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청정도 요구 수준이 까다로워 마진율이 우수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클린룸은 Class 1 수준의 초청정 환경을 요구하며, 온도·습도·기압·입자 농도 등을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고난도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부문이 차지하는 실질적 기여도는 매출 비중인 50% 초반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사이클이 호황일 때는 급격한 실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기에 양사가 평택, 용인, 이천 등지에서 대규모 신규 라인 증설과 기존 라인 첨단화를 추진하면서 신성이엔지는 클린룸 구축 및 설비 설치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했다. 단일 프로젝트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였으며, 이는 신성이엔지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침체되어 양사의 투자 집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신성이엔지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높은 경기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클 산업이며, 가격 변동폭이 크고 공급과잉 시 급격한 수익성 악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업황 침체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무 건전성 유지와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 설비투자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클린룸 구축 수요의 급감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침체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설비투자를 감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신성이엔지를 포함한 반도체 인프라 전문 기업들은 신규 수주 급감과 기존 프로젝트 진행 지연으로 인해 실적 부진을 기록했던 전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반도체 설비투자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비교적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분기별로 20~30% 이상 변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따라 제조사들의 투자 계획 역시 분기 단위로 수정되곤 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성이엔지의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설비투자 집행 추이와 향후 설비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사의 분기 실적 발표 시 공시되는 설비투자(Capex) 규모, 경영진의 컨퍼런스콜에서 언급되는 향후 투자 방향성,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특히 DRAM 현물가격과 NAND 계약가격), 그리고 HBM 등 첨단 제품 믹스 변화에 따른 신규 라인 증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4,545	6,641	5,765	5,823	5,618
증가율(%)	-5.8	46.1	-13.2	1.0	-3.5
매출원가	4,026	5,879	5,102	5,209	5,018
매출원가율(%)	88.6	88.5	88.5	89.5	89.3
매출총이익	519	762	664	614	599
매출이익률(%)	11.4	11.5	11.5	10.5	10.7
판매관리비	496	552	590	564	506
판매비율(%)	10.9	8.3	10.2	9.7	9.0
EBITDA	109	285	184	184	224
EBITDA 이익률(%)	2.4	4.3	3.2	3.2	4.0
증가율(%)	-62.8	160.7	-35.2	-0.2	21.5
영업이익	24	210	74	50	94
영업이익률(%)	0.5	3.2	1.3	0.9	1.7
증가율(%)	-87.1	780.8	-65.0	-32.2	87.3
영업외손익	-201	-14	-26	-175	-77
금융수익	9	30	21	46	43
금융비용	75	115	130	128	135
기타영업외손익	-134	71	83	-94	14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	279	96	4	41
세전계속사업이익	-175	475	144	-122	57
증가율(%)	적지	흑전	-71.9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17	171	-9	18	2
계속사업이익	-159	368	153	-140	55
중단사업이익	0	39	0	0	0
당기순이익	-159	343	153	-140	55
당기순이익률(%)	-3.5	5.2	2.6	-2.4	1.0
증가율(%)	적지	흑전	-55.5	적전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59	341	162	-141	56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13	-240	468	28	209
당기순이익	-159	343	153	-140	55
유형자산 상각비	74	63	93	112	109
무형자산 상각비	11	11	17	22	21
외환손익	7	7	8	5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16	-530	-70	70	27
기타	170	-134	267	-41	-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8	301	-318	-219	1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	257	42	-12	4
유형자산의 감소	2	2	12	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96	-138	-225	-106	0
기타	128	180	-147	-102	9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1	47	-103	343	-0
차입금의 증가(감소)	71	43	-110	403	-0
사채의증가(감소)	24	-16	0	-70	0
자본의 증가	25	16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1	4	7	10	0
기타현금흐름	16	-24	-1	39	-4
현금의증가(감소)	-144	85	45	191	218
기초현금	330	186	270	316	506
기말현금	186	270	316	506	724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2,512	2,507	2,585	2,663	2,805
현금성자산	186	270	316	506	724
단기투자자산	347	38	113	212	205
매출채권	0	1,016	975	1,070	1,032
재고자산	356	278	299	153	148
기타유동자산	1,623	904	882	721	695
비유동자산	2,255	3,268	3,293	3,390	3,256
유형자산	1,157	2,205	1,444	1,418	1,309
무형자산	51	80	97	92	72
투자자산	842	770	678	710	707
기타비유동자산	205	213	1,074	1,170	1,168
자산총계	4,767	5,776	5,877	6,053	6,061
유동부채	2,250	2,569	2,492	3,235	3,190
단기차입금	730	953	962	1,172	1,172
매입채무	0	700	791	574	554
기타유동부채	1,520	916	739	1,489	1,464
비유동부채	437	1,095	960	442	440
사채	150	50	70	0	0
장기차입금	216	905	815	340	340
기타비유동부채	71	140	75	102	100
부채총계	2,686	3,664	3,451	3,677	3,630
자배주주지분	2,079	2,109	2,433	2,382	2,438
자본금	1,022	1,030	1,030	1,030	1,030
자본잉여금	1,845	1,860	747	747	747
자본조정 등	-29	-29	-29	-29	-2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70	-163	-2	88	88
이익잉여금	-930	-589	686	545	601
자본총계	2,080	2,112	2,426	2,375	2,431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9.4	25.9	N/A	59.9
P/B(배)	2.1	1.5	1.7	1.0	1.4
P/S(배)	1.0	0.5	0.7	0.4	0.6
EV/EBITDA(배)	46.0	17.4	31.2	21.9	21.3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78	166	79	-68	27
BPS(원)	1,018	1,025	1,182	1,157	1,184
SPS(원)	2,237	3,228	2,801	2,829	2,729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8.0	16.3	7.1	-5.8	2.3
ROA	-3.5	6.5	2.6	-2.3	0.9
ROIC	4.3	9.3	2.6	0.2	4.2
안정성(%)					
유동비율	111.7	97.6	103.7	82.3	87.9
부채비율	129.1	173.5	142.3	154.8	149.3
순차입금비율	31.0	83.3	64.0	68.8	58.6
이자보상배율	0.6	4.3	0.7	0.5	0.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0	1.3	1.0	1.0	0.9
매출채권회전율	N/A	13.1	5.8	5.7	5.3
재고자산회전율	16.6	20.9	20.0	25.7	37.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신성이엔지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1.20	신성이엔지-반도체 설비투자 회복은 인프라 기업의 기회
2022.09.23	신성이엔지-전 사업부 턴어라운드, 확실한 주가 반등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권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